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 29.(월) 06:00 < 1.30.(화) 석간 > 배포 2024. 1. 29.(월)

경제자유구역청과 릴레이 현장소통

-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순회 간담회를 통한 현장소통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1.30.(화)부터 약 한 달간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을 주재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수요를 점검하고, 수출·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과 유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토지를 저렴하게 분양(또는 임대)하고,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하며 정주여건을 위한 주택과 상업시설을 제공하는 복합도시 개발사업으로, 2003년에 지정된 인천 송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자체들로서는 다양한 특구제도 중에서도 외국인과 유턴기업, 첨단산업과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자체의 투자 유치 적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식을 수시 지정*으로 바꾼 이후 지자체들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인천, 부산·진해 등 9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을 신규로 지정 받으려는 지자체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기존)5~6년 주기로 일괄 시·도 공모를 통해 지정 → (개선)지정 수요 발생 시 수시 지정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높은 관심 속에 경제자유구역은 '22년 기준 입주 사업체 7,644개, 고용인원 23만여 명의 대표 경제특구로 성장해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순회 간담회에서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이 수출·투자의 거점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정부도 경제자유구역이 지자체 주도로 외투 및 핵심전략산업이 어우러지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책임자	과 장	양광석 (044-203-4610)
		담당자	주무관	황대영 (044-203-461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